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3)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세웠지만 조직 감감

제주도 2017~2021년 실행
문화예술제단에 복지지원팀
복지지원센터 운영안 제시
2018년에 시행 계획 말로만
재단 내부도 계획 공유 안돼

코로나19 사태 속에 광역 문화재단마다 예술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무풍지대처럼 보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는 단 한줄에 불과하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문을 열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계획'(2017~2021년)을 세워놓고도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경기는 소액 다건 긴급 지원 '백

신'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관련 정책이 나온다는 걸 다른 광역 시·도 문화재단이 증거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을 보자.

예술인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총 5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형 문화 뉴딜'이라는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기본재산 활용 방침을 밝힌 이 사업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백만 원의 기적', 40개의 공연 작품을 지원하고 독립영화 50편의 상영권을 구매하는 공연예술 프로젝트 '드라이빙 씨어터', 전업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과 활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술인종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으로 짜여졌다. 대부분 '소액 다건'으로 더 많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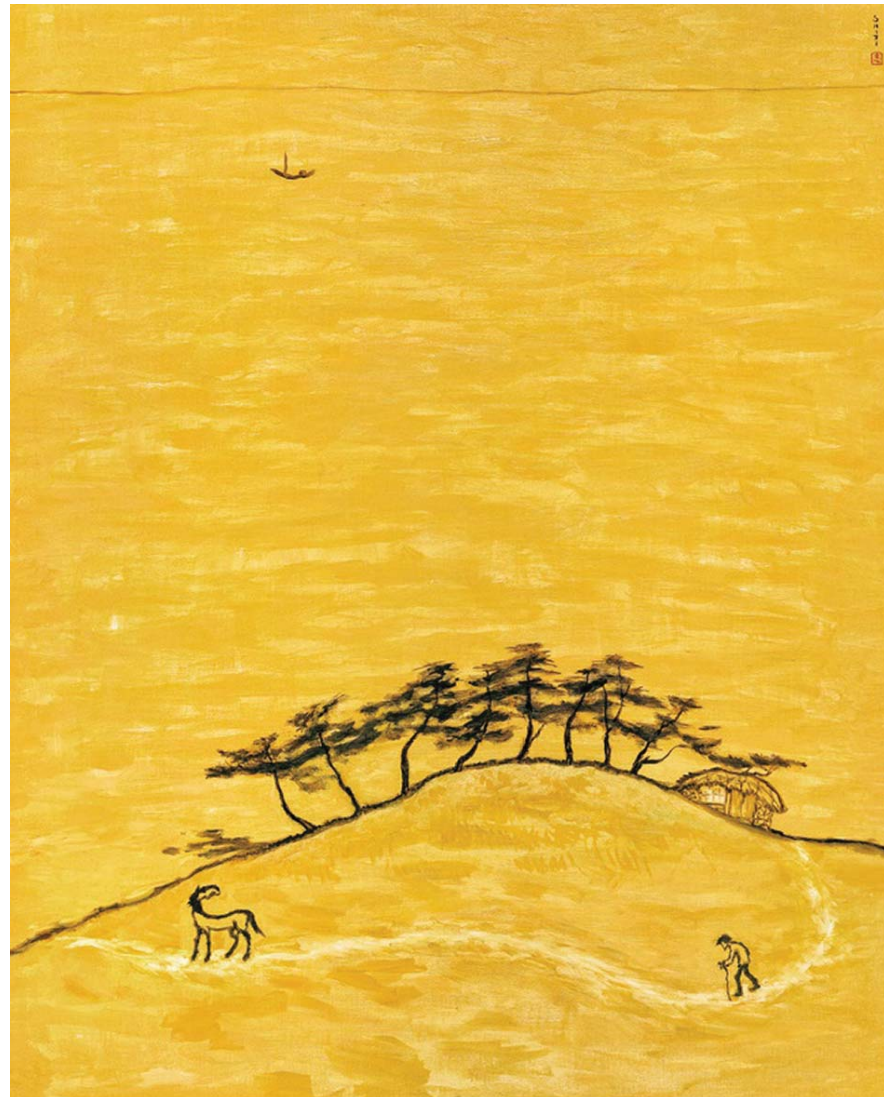
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예술인지원센터가 별도 꾸려지지 않더라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계획 실행 의지 부족 노출=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에 이미 '제주예술인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그려졌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18년 5000만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1억원이다. 총 3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18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문화예술인 복지지원팀을 신설하는 안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 예술인 복지·창작환경 등 실태조사와 복지 시책 발굴, 예술인복지증진사업 관련 제주도 위탁 사업 수행, 예술인활동

증명 대행, 예술인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일자리 창출연계, 공공기관 지원 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을 수행하자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엔 복지지원팀이 신설되지 않았다. 제주도 위탁으로 예술인 창작용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게 전부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방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그동안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엔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인 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변시지의 '이대로 가는 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상설 전시 작품 중 하나다.

잠자는 로봇… 신비롭고 모호한 세계

이미성 비아아트 개인전
'하우 잇 필즈' 프로젝트



이미성의 '슬리핑 로봇' (2020).

제주시 칠성로의 오래된 여관 골목에 자리잡은 대호호텔 1층 비아아트(viaart)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 놓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미성 개인전이다.

컴퓨터 그래픽 영상 작업을 펼치는 이미성 작가는 2018년부터 '하우 잇 필즈(How it feels)'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신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느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업으로 인간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신비로움과 모호함을 영상 작업으로 재현한다.

이번 전시장에 나온 작품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의 랩수면 장면을 담은 연작이다.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랩수면은 뇌의 활발한 신경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졌다. 작가는 생물이 아닌 존재도 랩수면을 하지 않을까라

는 상상으로 로봇, 붓다, 엔지니어(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외계인), 신으로 확장해 이 세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을 불러낸다. 이 작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와 문화기술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전시는 7월 5일까지 계속된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다. 문의 064)723-2600.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특별전 '태풍고백' 도록 발간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태풍을 인문·자연과학적으로 조망하는 특별전 '태풍고백' 하나의 눈동자를 가진 외눈박이 바람의 고백' 도록을 발간했다.

이번 도록엔 5월 12일부터 제주지방기상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 '태풍고백'의 전시출품 자료와 전시에서 담아내지 못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역대 태풍 자료, 바람과 함께 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생활자료 등 48건의 전시자료를 실었다. 박물관은 "태풍에 대한 지질과 기상학 등 자연과학과 역사, 민속, 예술 등 인문학의 여러 분야 주제를 종합한 최초의 태풍 단행본"이라고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특별전은 7월 5일까지 계속된다. 도록은 국립제주박물관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주목관아 체험 프로그램

(사)제주역사문화연구소(이사장 강웅희)가 이달 6일부터 총 13회에 걸쳐 '즐거운 생생체험, 위풍당당 우리

관아' 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관아 체험은 목관아에서 생활했던 관리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배인이었던 조정철 목사와 제주 여인 홍운애의 사연을 재현한 역할극 등이 이루어진다. 제주역사문화연구소는 이와함께 연령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한 답사 프로그램인 '원도심 길 위에서 천년의 유산을 만나다' 등도 예정하고 있다. 문의 064)746-1457.

서귀포성당 120주년 사진전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설립 12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중섭거리 야외 전시장에서 열린다.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포성당 120주년 기념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는 서귀포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 주최 측은 "본당 공동체 안에 천주교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천주교의 올바른 길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064)762-3444.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빛냈던 그 작품

제주돌문화공원 내 누보
변시지 화집 출간 기념
'바람의 길, 변시지' 전

2007년부터 10년 동안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상설 전시됐던 '폭풍의 화가' 변시지(1926~2013) 선생의 작품이 제주에서 공개된다. 제주돌문화공원에 동지를 튼 누보(대표 송정희)에서 개관 기념으로 펼치는 '바람의 길, 변시지' 전이다.

이번 전시는 동명의 화집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송정희 누보 대표는 2년 여의 준비 끝에 70년에 걸친 변시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망라하고 육성 기록 등을 더해 지난 4월 화집을 내놓은 바 있다. '완숙한 동양화의 경지를 유화의 기법으로 진화시키며 동서양의 독자적 융합과 동양미의 관찰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작가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짜여진 화집에는 총 180여 점이 수록되었는데 절반 이상을 미공개작으로 소개했다.

누보에서 전시되는 작품에는 스미

스소니언 박물관에 걸렸던 100호 크기의 '난무'와 '이대로 가는 길' 두 점이 포함됐다. 변 작가 특유의 '제주화' 소재인 바다, 초가, 까마귀, 등 굽은 사내 등이 등장하는 그림들로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 생존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박물관 관계자가 온통 황토빛으로 채워진 변 작가의 그림을 우연히 보고 거기에서 한국의 전통미를 발견하면서 성사된 전시였다.

누보 송정희 대표는 이 전시에 대해 "세계 최대 박물관인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한국관 디렉터는 박물관이 추구하는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한국인 예술가로 변시지를 발굴했다. 가장 지역적인 주제를 품고 있지만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했던 변시지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시 기간은 6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누보는 돌문화공원 제2코스 입구에 자리했다. 개막 행사는 6월 20일 오후 3시 신청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문의 064)727-7790. 전선희기자

25평 주택기준 연 400만원

**너는 월로 돈버니?
난 내 지붕에서 햇빛으로 돈번다!**

나눔빛은 단독주택 옥상부터 층사, 창고 및 상업시설의 지붕 위에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맞춤형 브랜드입니다.

064-745-0420

네이버에 나눔에너지를 검색해 보세요!

2020.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20 3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TEL. 064-745-0420 FAX. 070-8812-0420